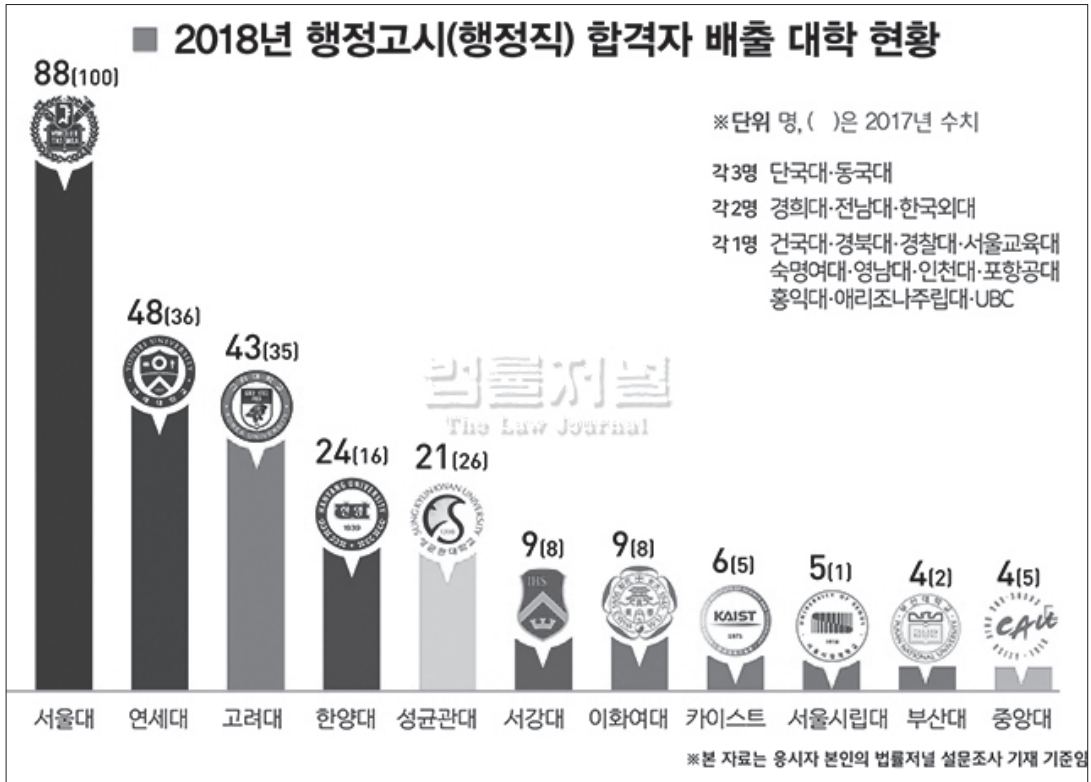




수험소식 및 수험자료

## 주요 대학 2018년도 5급 공채(행정) 합격자 수



2018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행정)에서 서울대학교의 편중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단국대학교와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로 꾸준히 합격자 다수를 배출해 왔던 부산대가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률저널이 지난달 29일 발표된 2018

년도 5급 공채(행정) 최종합격자 284명(전국 모집 250명, 지역모집 34명)명의 신원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들 합격자의 학부 출신대학(합격자 본인의 설문조사 기재 기준)을 보면 서울대가 역시 압도적 1위를 지켰다. 올해 서울대학교 합격자는 88명으로 전체의 31.0%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100명,

36.4%)보다 5.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다소 부진한 결과다.

최근 서울대학교의 합격자를 보면 2009년 35.7%(87명), 2010년 34.6%(92명), 2011년 33.1%(86명), 2012년 30.3%(81명)로 줄곧 감소세가 지속됐지만 그래도 30% 선은 유지했다. 2013년에는 36.8%(100명)로 크게 반등했으나 2014년(31.6%, 94명)에 2012년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15년(33.6%) 또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서울대학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하지만 2016년 28.1%로 30% 선이 무너지면서 근래 들어서 가장 저조한 결과를 보이면서 서울대학교의 자존심은 상당히 구겨졌다. 2017년(36.4%) 또다시 2013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서울대학교의 위엄을 재현했다가 올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주요 직렬별로 분석하면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일반행정(전국)의 경우 총 127명 가운데 서울대학교가 31명으로 24.4%를 차지했으며 지난해(36명, 30%)보다 5.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행정(전국)에서 서울대가 차지한 비율은 전체 평균(32.2%)보다는 다소 밀돌았다. 서울대학교는 지역에서도 7명으로 지난해와 같았지만 비율은 25%에서 21.2%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행정고시의 꽃’으로 불리는 재경직의 강세가 두드러졌지만 올해는 편중이 다소 완화됐다. 재경직 전체 합격자 83명 중 서울대학교가 36명인 43.4%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지만 지난해(39명, 48.2%) 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38명, 46.3%)에 비해서도 떨어졌다.

재경직 합격자의 약 절반을 서울대학교가 차지했지만 2015년(61.1%, 44명)보다는 서울대학교 편중이 다소 감소한 수치다. 이 밖에

서울대학교는 교육행정에서 12명 중 7명으로 58.3%로 압도적이었다. 이 밖에 국제통상, 법무행정 등 거의 모든 직렬에서 합격자를 배출했다.

올해 행정고시 연고전은 연세대학교가 고려대학교를 여유 있게 따돌리며 2연패를 달성했다. 연세대학교는 올해 48명(16.9%)의 합격자를 내면서 지난해(36명, 13.1%)보다 3.8%포인트 증가하는 선전을 보이면서 2위 자리를 고수했다.

지난해 연고전은 간발의 차이로 연세대학교가 고려대학교를 누르며 8년 만에 2위 탈환에 성공했다. 연세대학교는 2010년부터 7년 연속 고려대학교에 뒤처지면서 ‘고상연하(高上延下)’의 말이 굳어지는 형국이었지만 지난해 연세대학교가 1명 차이로 앞서면서 ‘연-고대’ 순으로 되돌리고 올해는 고려대학교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2위 자리를 수성했다.

최근 연세대학교의 합격자를 보면 2014년 32명, 2015년 40명, 2016년 41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36명으로 40명 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48명으로 증가하면서 선전이 두드러졌다.

직렬별로는 역시 일반행정(전국)이 27명(21.3%)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17명, 14.2%)보다도 많이 증가했으며 연세대학교의 전체 평균(17.6%)보다 다소 높아 일반행정에서의 강세가 눈에 띄었다. 일반행정 지역에서도 5명의 합격자를 냈다.

그동안 재경직에서 연세대학교가 고려대학교에 보다 강세가 돋보였지만 올해는 12명(14.5%)에 그쳤으며 지난해(15명, 18.5%)보다도 감소하면서 라이벌인 고려대학교(11명)와 큰 차이가 없었다. 연세대학교는 총 48명 중 일반행정과 재경에서만 모두 44명을 배출해 압도적이었다. 이 밖의 직렬에서는 국제통

상, 인사조직, 사회복지 등에서 합격자를 배출하는 데 그쳤다.

지난 7년간 2위의 아성을 굳혔던 고려대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세대학교에 발목이 잡히면서 2위 탈환에 실패했다. 올해 고려대학교는 43명(15.1%)으로 지난해(35명, 12.7%)보다 2.4%포인트 증가하는 선전을 보였지만 2위 탈환에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고려대학교의 합격자 수는 2014년 55명, 2015년 46명, 2016년 44명, 2017년 35명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올해 또다시 43명으로 증가하면서 하락세를 끊었다.

고려대학교의 주요 직렬 합격자를 보면, 먼저 일반행정(전국)은 25명(19.7%)으로 지난해(16명, 13.3%)보다 다소 증가했다. 일반행정 지역도 지난해(2명)보다 증가한 3명이었다. 재정직도 9명에서 11명으로 증가하는 선전을 보였다. 이 밖에 교육행정, 국제통상, 법무행정 등의 직렬에서 합격자를 배출했다.

올해 행정고시 합격자 가운데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이들 상위 3개 대학의 편중이 다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는 부진했지만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많이 증가하면서 SKY 대학의 출신은 179명인 63.0%로 지난해(171명, 62.2%)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2016년(163명, 58.6%)에 비해서는 4.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SKY 대학의 비율을 보면 2012년 66.7%, 2013년 67.6%, 2014년 60.9%, 2015년 64.6% 등으로 등락을 보였지만 줄곧 6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6년 58.6%로 60%선이 무너졌다가 지난해 또다시 60%대로 증가하면서 이들 대학의 편중이 더욱 심화했다.

4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성균관대와 한양대의 승자는 한양대로

돌아갔다. 올해 한양대학교는 24명(8.5%)으로 지난해(16명, 5.8%)보다 2.7%포인트 증가하는 선전을 나타내며 라이벌 성균관대학교를 밀어내고 4위 자리를 꿰찼다.

주요 직렬의 합격자를 보면 역시 일반행정(전국)이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행정 지역도 6명으로 서울대학교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재정직에서 합격자가 미미했던 한양대는 올해 6명의 합격자를 내는 두각을 나타내며 성균관대학교와 같았다. 합격자 24명 중 일반행정과 재정에서 21명의 합격자를 냈다.

지난해 한양대학교와의 라이벌전에서 압승을 거두었던 성균관대학교는 올해 다소 부진하면서 4위 자리를 내줬다. 성균관대학교는 올해 21명(7.4%)에 그쳐 4위 수성에 실패했다. 이는 지난해(26명, 9.5%)보다 2.1%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주요 직렬별로는 일반행정(전국)이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재정 6명, 일반행정 지역 5명 등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국제통상에서도 1명의 합격자를 냈다.

서강대학교는 올해 9명(3.2%)으로 지난해(8명, 2.9%)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6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도 8명으로 공동 6위를 차지했던 서강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는 올해도 나란히 9명으로 공동 6위를 차지해 관심을 끌었다. 서강대학교는 일반행정 전국(4명)과 재정(4명)에서 주로 합격자를 냈으며 이 밖의 직렬(국제통상 1명)에서는 1명뿐이었다. 서강대학교와 공동 6위를 차지한 이화여자대학교도 지난해(8명)와 비슷한 9명의 합격자를 냈다. 직렬별로는 일반행정(전국 4명, 지역 2명)에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재정(2명), 교육행정(1명)에서 합격자를 냈다.

카이스트는 지난해 5명으로 중앙대학교와 공동 10위에 그쳤지만 올해 6명(2.1%)의 합

격자를 내면서 8위로 올랐다. 직렬별로는 재경(3명), 일반행정 전국(2명), 국제통상(1명) 등의 직렬에서 합격자를 배출했다.

올해 ‘10명 이하’ 배출 대학에서 단연 두각을 드러낸 대학은 서울시립대학교였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지난해 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데 그쳐 순위권 밖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5명(1.8%)의 합격자를 내면서 9위로 꺾충 뛰면서 ‘Top 10’에 들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올해 기술직에서도 3명으로 6위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다.

부산대학교도 올해 4명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지방거점국립대의 자존심을 지켰다. 지난해는 2명에 그쳐 10위권 밖으로 밀렸지만 올해 또다시 중앙대학교와 공동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

지난해 5명으로 카이스트와 공동 10위에 턱걸이했던 중앙대학교는 올해는 4명으로 부산대학교와 공동으로 10위에 자리매김했다. 중앙대학교는 일반행정(3명), 재경(1명)에서 합

격자를 냈으며 부산대학교는 모두 일반행정(전국)에서만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 밖에 단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도 선전했다. 단국대학교는 지난해 1명에 그쳤지만 올해 3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법무행정 수석을 배출하는 등 눈에 띄는 선전을 보였다. 동국대학교도 지난해 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3명으로 선전했다. 경희대학교는 지난해 6명으로 9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2명에 그쳐 순위 밖으로 밀리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남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각 2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씩 합격자를 늘렸다.

1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은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찰대학, 서울교육대, 숙명여자대학교, 영남대학교, 인천대학교, 포항공과대학, 홍익대학교 등이다. 건국대학교, 경찰대학, 영남대학교는 지난해 선전했지만 올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와 독학사 출신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주요 직렬별 상위 대학별 합격자 현황〉

( ) 안은 2017년 수치

일반행정(전국-127명)		일반행정(지역-34명)		재경직(83명)	
대학	인원	대학	인원	대학	인원
서울대	31명(36명)	서울대	7명(7명)	서울대	36명(39명)
연세대	27명(17명)	한양대	6명(5명)	연세대	12명(15명)
고려대	25명(16명)	연세대	5명(3명)	고려대	11명(9명)
성균관대	9명(15명)	성균관대	5명(3명)	성균관대	6명(3명)
한양대	9명(8명)	고려대	3명(2명)	한양대	6명(3명)
교육직(12명)		국제통상직(11명)		법무행정직(8명)	
대학	인원	대학	인원	대학	인원
서울대	7명(6명)	서울대	2명(7명)	서울대	2명(3명)
고려대	2명(1명)	연세대	2명(0명)	단국대	2명(0명)

(법률저널 인용)